

Research Center

2015년 10월 19일

# 투자전략 Daily

- 투자전략

글로벌 신고가 업종군의 변화

- 이머징마켓 동향

개혁 기대, 주가 매력 등에 주요 이머징 강세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엔씨소프트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롯데칠성 외 5개 종목

- 산업분석

반도체, 보험, 은행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캘린더

자산배분전략 | 노근환 ☎ 3276-6226

투 자 전 략 | 박소연 ☎ 3276-6176

시 황 분 석 | 김대준 ☎ 3276-6247

글 로 벌 전 략 | 박중제 ☎ 3276-6560

계 량 분 석 | 안 혁 ☎ 3276-6272

파 생 / E T F | 강송철 ☎ 3276-6181

스몰캡 전략 | 정훈석 ☎ 3276-6232

이머징마켓 | 윤항진 ☎ 3276-6280

경 제 분 석 | 박정우 ☎ 3276-6229

채 권 분 석 | 이정범 ☎ 3276-6191

크 레 디트 | 김기명 ☎ 3276-6206

R E I T s | 이수정 ☎ 3276-6252

true**friend** 한국투자 증권

#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10/8(목)	10/12(월)	10/13(화)	10/14(수)	10/15(목)	10/16(금)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019.53	2,021.63	2,019.05	2,009.55	2,033.27	2,030.26
	등락폭	13.69	2.10	-2.58	-9.50	23.72	-3.01
	등락종목	상승(상한)	444(3)	346(4)	327(5)	611(3)	361(2)
		하락(하한)	395(0)	456(0)	491(0)	204(0)	433(0)
	ADR	122.56	113.40	105.69	103.07	111.46	108.44
	이격도	10 일	102.30	102.01	101.51	101.53	101.12
		20 일	102.67	102.54	102.27	102.54	102.15
	투자심리	70	80	70	70	70	60
	거래량 (백만 주)	701	635	605	645	499	542
	거래대금 (십억 원)	6,260	6,219	5,194	5,032	4,655	4,616
코스닥	코스닥지수	674.97	672.96	672.82	668.92	676.05	681.73
	등락폭	-4.86	-2.01	-0.14	-3.90	7.13	5.68
	등락종목	상승(상한)	444(3)	346(7)	327(10)	611(6)	549(6)
		하락(하한)	395(0)	456(0)	491(0)	204(0)	459(0)
	ADR	119.17	110.22	104.30	102.20	110.18	109.30
	이격도	10 일	98.80	98.61	98.75	98.38	99.46
		20 일	99.40	99.02	98.96	98.40	99.35
	투자심리	40	40	30	30	40	40
	거래량 (백만 주)	686	508	736	690	744	756
	거래대금 (십억 원)	2,994	2,367	3,123	2,980	2,903	3,059

##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650.9	1,176.6	751.7	204.3	101.5	154.9	58.7	11.0	221.3
	매도	2,646.8	1,235.0	720.2	139.6	130.0	149.4	79.5	8.9	212.9
	순매수	4.1	-58.4	31.5	64.7	-28.5	5.5	-20.9	2.2	8.4
	10 월 누계	-1,446.0	476.4	671.6	737.8	-116.7	-307.8	140.7	-2.3	220.0
	15 년 누계	1,933.8	1,099.6	-4,127.6	-4,093.1	-990.0	-4,510.5	-716.9	-926.9	7,109.7
코스닥	매수	2,791.5	166.6	115.9	30.0	12.6	35.7	11.1	2.7	23.8
	매도	2,791.7	190.9	89.9	21.0	18.9	20.3	2.8	2.9	23.8
	순매수	-0.2	-24.3	26.0	8.9	-6.4	15.4	8.3	-0.3	0.0
	10 월 누계	446.8	-35.8	-400.9	-44.6	-75.0	-127.8	-19.5	-7.7	-126.3
	15 년 누계	2,332.7	-827.3	135.0	-590.3	269.0	626.6	-107.6	-284.9	222.2

## 글로벌 신고가 업종군의 변화

2015년 Target KOSPI	2,100pt
12MF PER	10.6배
12MF PBR	0.94배
Yield Gap	7.8%P

- ▶ 신흥국의 통화완화 카드 : 신흥국 안도밸리 좀 더 지속될 전망
- ▶ 10월 이후 글로벌 신고가 종목들 : 산업재, 경기소비재가 많아
- ▶ 투자전략 : 성장보다는 가치, 내수보다는 수출로 이동

금리인하 카드를 검토하는  
신흥국 많아지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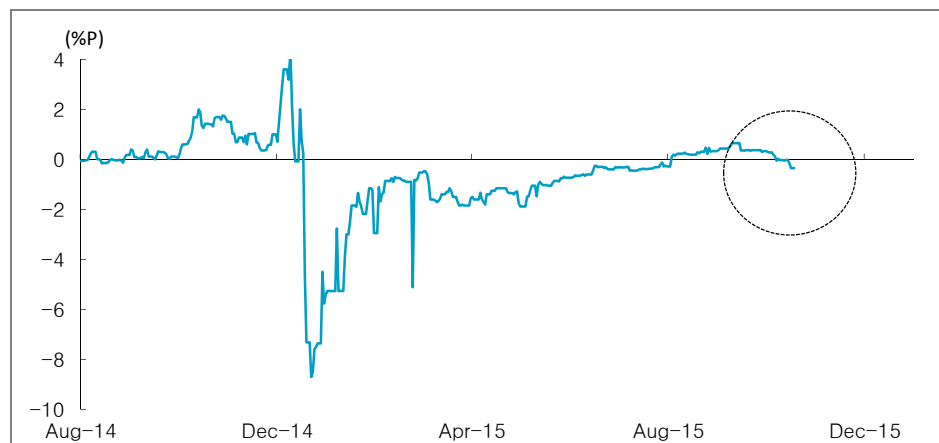
### ■ 신흥국, 통화완화 카드를 검토

지난 15일(목)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최근엔 통화완화 쪽으로 기우는 신흥국들이 많아지는 분위기다.

러시아의 경우 최근 루블화도 강세고 채권금리도 지속 하락하고 있는데 선물환 시장에서는 조만간 기준금리가 한 차례 인하될 것이라는 베팅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 금리인상 우려로 금융시장이 난장판이던 지난 9월엔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동결했지만, 이제 다시 통화완화를 재개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는 것이다. 다음 통화정책 회의는 10월 30일인데 최소 25bp, 많게는 50bp 인하(현재 기준금리는 11%)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실제로 선물환 시장에서는 향후 3개월간 금리인하폭을 35bp 정도로 반영(pricing)하고 있다.

남아공도 더 이상의 강한 긴축은 안하겠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남아공은 올해 1월부터 금리를 100bp나 올렸는데 지난 16일(금) 남아공 중앙은행장 레세자 한야호(lesetja kganyago)는 ‘아직 통화 긴축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매 회의마다 금리를 올리진 않을 것이다. 현재 경제 지표로 보면 인플레이션과 저성장 사이의 딜레마가 심각하다. 이는 통화정책에 균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발언했다. 특히 통화 약세가 충격 흡수제(shock absorber) 역할을 하고 있다고 표현한 것은 매우 흥미롭다.

[그림 1] 러시아 금리인하 베팅 증가 : 금리선물과 국채금리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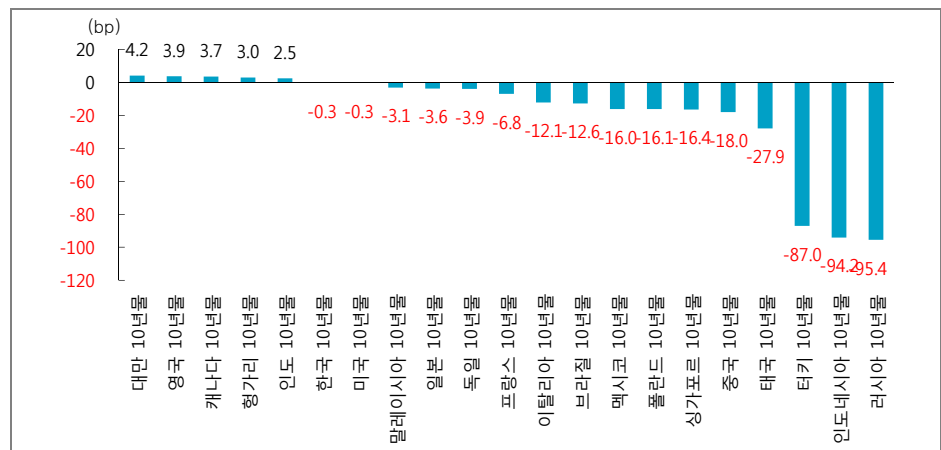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그래서일까. 10월 들어 러시아, 인도네시아, 터키 등 위기 신흥국으로 분류됐던 국가들의 국채 금리가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 미국 금리인상이 지연될 것이라는 안도감이 주된 요인이겠으나, 러시아의 경우 국채 10년물 금리가 연중 최저치인 10%까지 하락하는 등 내부적인 요인도 커보인다. ▲ 자본유출과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보다 ▲ 경기둔화를 방어하기 위해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세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경기가 얼마나 안좋으면 금리를 인하하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러나 미국 금리인상과 인플레이 우려 때문에 통화완화에 소극적이었던 신흥국이 이제사 정책카드를 쓰기 시작한 것이라면, 당분간 긍정적 측면이 좀 더 부각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필자가 여전히 한국의 대형주 상대강도 개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아직은 글로벌 저금리 기조와 신흥국 안도델리가 지속되는 컨셉이다.

[그림 2] 글로벌 주요국 10년물 금리 변동 : 신흥국 금리 하락폭 가팔라



자료: Bloomberg

[그림 3] 러시아 금리 10년물 : 연중 최저치인 10%까지 하락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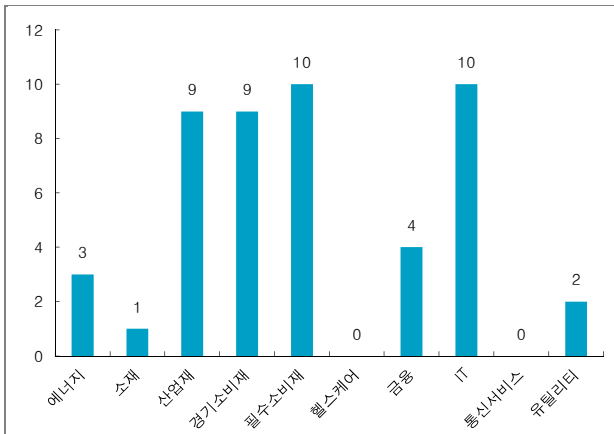
## ■ 투자전략 : 성장보다는 가치, 내수보다는 수출

### 주도 업종군의 변화

시장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으나 주도하는 업종군은 분명 달라지고 있다. 상반기는 헬스케어와 필수소비재가 주도했던 시장이었으나, 최근 가장 탄력이 좋은 것은 산업재와 경기소비재 업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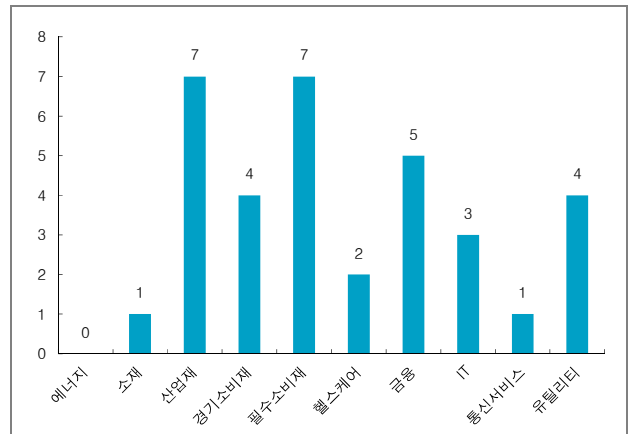
우리는 10월 이후 미국, 유럽, 일본, 중국시장에서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을 조사하고 GICS 업종 분류 순으로 정리해보았다.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미국은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편입종목 중 48개가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헬스케어 업종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고 대신 산업재가 9개, 경기소비재가 9개, 필수소비재가 10개 들어갔다. 여타 시장도 결과가 비슷했다. 유럽과 일본, 중국도 산업재가 선두그룹에 속했다. 한편 상품가격 반등에도 불구하고 연초 이후 하락폭이 너무 거셌던 탓인지 에너지와 소재 쪽 성과는 좋은 편은 아니었다.

[그림 4] 10월 신고가 종목수 업종별 분포 :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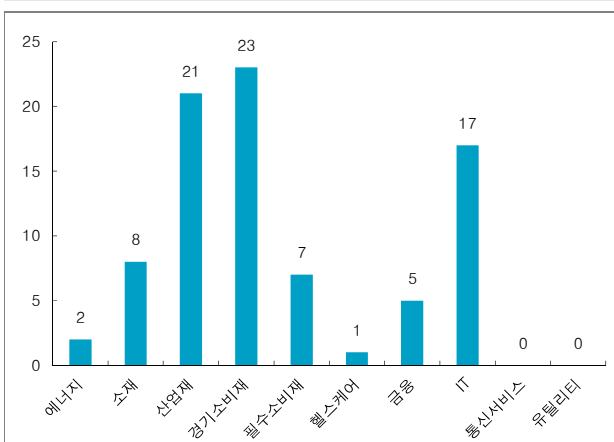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S&P500과 나스닥 지수)

[그림 5] 10월 신고가 종목수 업종별 분포 : 유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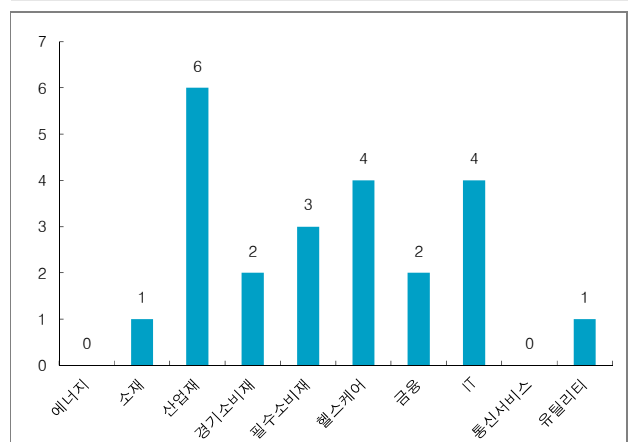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BE500 지수)

[그림 6] 10월 신고가 종목수 업종별 분포 : 일본



자료: Bloomberg (TOPIX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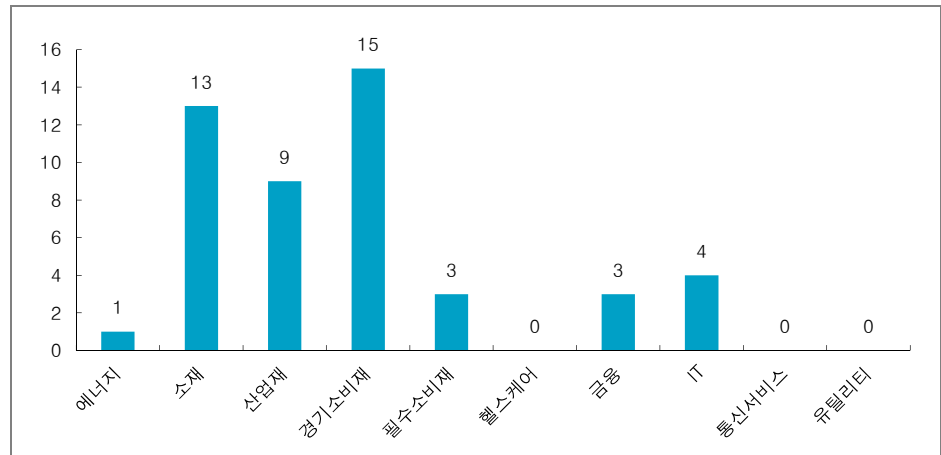
[그림 7] 10월 신고가 종목수 업종별 분포 : 중국



자료: Bloomberg (상해종합지수와 선전종합지수)

한국도 사정은 얼추 비슷한 것 같다. 헬스케어 업종에서는 신고가 종목이 하나도 없었고 산업재, 경기소비재 업종에서 신고가 종목이 많이 출현했다. 여타 국가에서는 소재 업종 성적이 좋지 않았으나, 우리나라는 대체로 업스트림(upstream)보다는 다운스트림(downstream) 업체들의 비중이 큰 탓인지 소재 업종 선전이 두드러졌다.

[그림 8] 10월 신고가 종목수 업종별 분포 : 한국



자료: Bloomberg

물론 같은 산업재라도 미국의 경우는 방산 및 보안업체들이 주류이고 유럽은 건설/건설자재와 항공, 중국은 기계/운송/건설업체들이 대다수라 국가별 특징은 존재한다. 일본의 산업재 신고가 종목들은 대부분 정부 재정지출 드라이브와 내수 회복에 포진한 건설자재와 건설업체들이 상당수다. 한국의 경우는 신고가 종목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조선주와 일부 건설주가 시세를 주도하고 있다.

양태는 다양하나 이를 아우르는 메시지는 하나다. 초저금리 환경 하에 선전했던 고밸류 주식들은 그 빛이 바래고 있으나, 정부의 재정지출 드라이브와 인프라 투자에 대한 수요, 산업 내 구조조정 등이 맞물리며 시장의 색깔이 또 한번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유효수요 부족이라는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으나, 신흥국의 통화완화와 경기부양 의지는 히든 카드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 인민은행의 추가 기준을 인하, 추가 금리인하 여부가 중요하다. 최근 위안화가 소폭이지만 약세로 돌아선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시장은 12MF PER이 10.6배까지 상승하는 등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져 지수 자체의 탄력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나 시장의 스타일은 점차 성장보다는 가치, 내수주보다는 수출주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 Appendix 1 : 전주 동향 및 기업실적 추정치 변경

코스피는 전주말 대비 0.53% 상승 마감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 지연과 3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진 점이 호재로 작용했으나,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수출대형주가 반락하며 추가 상승 여력이 제한되는 모습이었다.

업종 중에서는 금리 동결의 영향으로 은행(+5.6%) 업종의 NIM 하락 우려가 덜어지며 강세를 보였고, 원/달러 환율 하락과 배당에 대한 기대감에 유틸리티 업종이 강세를 보였다. 반면 TPP 수혜 업종으로 지목된 섬유 업종은 차익매물 출회로 하락했다.

한국전력(+6.3%)은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고, KB손해보험은(+6.0%) 자회사 매각 소식에 상승했다. 현대중공업(+10.1%), 현대미포조선(+4.9%), 대우조선해양(+4.9%) 등 조선주 역시 3분기 실적 개선 가능성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영원무역(-9.7%)은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인한 마진 축소 우려에 하락했고, 자동차/부품 업종 역시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며 약세를 보였다.

지난 주에는 일부 금융 업종과 유틸리티 업종이 눈에 띄게 상향조정된 반면, 소재, IT 하드웨어와 디스플레이, 소재 업종은 비교적 큰 폭으로 하향조정됐다.

〈표〉 업종별 주간 EPS 변화를 및 등락을 변화

Name	수익률 (%)			12MF EPS CHANGE (%)		12MF Valuation (X)	
	1W	1M	YTD	1W	1M	PER	PBR
에너지	-1.56	7.92	32.72	-0.11	-2.01	8.63	0.78
소재	0.78	2.68	10.27	-1.15	-1.95	10.60	0.78
화학	-0.05	5.29	43.63	-1.23	0.23	10.71	1.05
금속 및 광물	2.16	3.46	22.06	0.18	1.82	12.64	1.39
산업재	1.32	0.12	-0.85	-0.49	4.31	19.48	1.17
자본재	1.62	-0.76	0.69	-0.45	5.25	19.94	1.10
건설	1.56	1.57	1.92	-0.86	1.16	10.98	0.87
조선	6.02	3.00	-21.60	-50.74	적전	적전	0.58
상업서비스	0.03	4.84	27.99	0.01	1.88	19.72	2.80
운송	0.05	3.41	-14.89	-0.71	0.86	17.40	1.43
경기소비재	-1.16	0.47	10.24	0.17	1.00	10.06	1.06
자동차/부품	-0.35	1.65	-4.10	0.26	1.11	6.58	0.72
내구소비재/의류	-2.33	3.06	39.52	-0.27	1.49	23.95	3.44
소비자 서비스	-1.80	-3.25	30.60	-0.26	0.86	19.86	3.33
미디어	-1.43	-1.62	23.37	0.26	0.13	16.11	1.68
유통	-1.46	-5.95	17.49	0.16	0.14	13.49	0.85
필수소비재	0.22	2.94	38.58	0.05	-0.56	20.55	2.05
음식료/담배	-0.14	2.02	37.76	0.09	-0.96	19.73	1.82
생활용품	2.66	9.03	44.51	-0.15	0.87	25.83	5.69
의료	1.39	-1.03	74.65	-0.67	0.48	27.45	2.36
제약/바이오	1.43	-1.07	75.00	-0.67	0.48	27.45	2.36
금융	3.04	1.64	-0.07	0.02	0.69	9.11	0.63
은행	3.18	0.84	-4.72	-0.42	-0.54	7.44	0.47
기타금융	2.33	5.89	24.64	5.01	5.69	7.68	0.91
증권	3.61	-1.84	13.28	1.16	2.87	8.78	0.75
보험	2.48	4.63	2.27	0.15	1.74	11.83	0.91
IT	-0.19	8.14	-7.92	0.31	1.23	9.87	1.08
소프트웨어	2.43	9.73	-5.15	4.08	12.01	21.81	2.82
하드웨어	2.12	-2.85	3.61	-2.60	-0.27	14.08	0.94
반도체	-0.82	8.78	-7.53	0.01	0.77	8.21	0.97
디스플레이	1.99	-4.25	-25.61	-1.99	-13.48	9.19	0.69
통신서비스	0.29	0.47	-2.53	-0.11	-1.40	10.65	1.03
유틸리티	4.61	2.20	13.38	1.70	-4.62	6.11	0.53

주: 표에 제시된 업종별 수익률은 10월 16일 종가 기준, 추정치는 그 직전일 종가 기준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 ■ Appendix 2 : 국내 펀드 시장 동향

지난 주에는 중소형 주식형 펀드군과 인덱스 주식형 펀드군에선 순유입세가 관찰됐지만, 일반 주식형과 배당 주식형 펀드군에서는 순유출세가 관찰됐다. 특히 일반주식형의 경우 4거래일에 걸쳐 1천억원 이상의 자금이 유출됐다.

지난 주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된 펀드는 삼성자산의 KODEX200(+3,327억), 미래에셋TIGER경기방어(+118억), 이스트스프링차이나드래곤Ashare(+109억) 등이었고, 자금이 가장 많이 유출된 펀드는 미래에셋TIGER200(-506억), 신영밸류고배당(-430억) 등이었다.

〈표〉 유형별 국내 주식형 펀드 설정액

	설정액(억원)				설정액 증감(억원)			
	일반 주식형	중소형주식형	인덱스주식형	배당주식형	일반 주식형	중소형주식형	인덱스주식형	배당주식형
2015-07-31	237,135	29,864	76,322	52,091	748	842	416	323
2015-08-07	238,200	30,257	76,870	52,611	1,065	392	548	520
2015-08-14	238,768	30,571	77,123	52,364	568	315	254	-247
2015-08-21	240,492	30,555	78,655	52,731	1,724	-17	1,531	367
2015-08-28	243,502	30,858	82,251	53,235	3,011	303	3,597	504
2015-09-04	244,712	31,401	81,629	53,830	1,210	543	-622	595
2015-09-11	245,304	32,708	81,271	54,052	592	1,307	-358	222
2015-09-18	245,810	33,062	82,624	54,171	506	354	1,353	120
2015-09-25	245,320	33,506	81,510	54,736	-490	444	-1,113	565
2015-10-02	246,183	33,977	82,757	55,130	863	471	1,247	394
2015-10-08	246,174	34,180	81,532	55,039	-9	203	-1,226	-91
2015-10-16	244,833	34,346	82,154	54,312	-1,341	166	622	-727

자료: 펀드닥터, 한국투자증권

〈표〉 주요 설정액 증감 펀드

(단위: 억원)

	회사명	펀드명	투자지역	증감액	설정원본
설정액 증가	삼성자산운용	삼성KODEX2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국내	3,327	44,908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TIGER경기방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국내	118	3,681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	이스트스프링차이나드래곤AShare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해외	109	4,770
	삼성자산운용	삼성중소형FOCUS증권모투자신탁(주식)	국내	109	7,858
	삼성자산운용	삼성중소형FOCUS증권투자신탁 1(주식)	국내	106	7,638
	메리츠자산운용	메리츠코리아증권투자신탁 1(주식)	국내	91	16,071
	KB자산운용	KB밸류포커스증권투자신탁(주식)클래스C	국내	67	2,764
	KB자산운용	KB밸류포커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국내	65	18,393
	KB자산운용	KB마이플랜배당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국내	63	12,855
	KB자산운용	KB중소형주포커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국내	57	9,677
설정액 감소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TIGER2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국내	-506	16,882
	신영자산운용	신영밸류고배당증권투자신탁(주식)I형	국내	-430	1,995
	신영자산운용	신영마라톤증권투자신탁(주식)I	국내	-150	1,016
	한국투자신용	한국투자네비게이터증권투자신탁 1(주식)(C-F)	국내	-142	2,213
	한화자산운용	한화ARIRANG2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국내	-132	4,708
	신영자산운용	신영밸류고배당증권투자신탁(주식)C형	국내	-102	14,160
	한국투자신용	한국투자KINDEX2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국내	-94	7,025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현대인베스트먼트로우프라이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국내	-68	2,795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해외	-65	8,739
	교보약사자산운용	교보약사파워K2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국내	-62	5,483

주: 2015년 10월 15일 기준, 설정액 1,000억원 이상 공모 주식형 펀드 대상

자료: 금융투자협회, 한국투자증권



### ■ Appendix 3 : 주간 글로벌 주식형, 채권형 펀드 자금 유출입

지난 주 한국 관련 4대 주식형 펀드군 중 선진국(International, Pacific) 주식형 펀드군은 2.5억달러 가량 순유출세가 관찰된 반면, 신흥국(Asia ex-Japan, GEM) 주식형 펀드군에서는 6.4억 달러의 순유입세가 관찰됐다. 한국, 홍콩, 브라질에선 순유출세가, 중국, 인도, 러시아에서는 순유입세가 관찰됐다. 한편 연준의 금리 인상 연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모든 채권형 펀드군이 순유입세를 기록했다.

〈표〉 글로벌 주식형 펀드 유출입

(단위: 백만달러)

구 분	지역	자산규모	한국비중	자금유출입		
				최근 1주	최근 4주	2015년
선진국 투자펀드	International	2,061,810	1.2%	-154.6	-4,690.3	75,209.4
	Pacific	47,950	4.9%	-97.3	-92.7	683.9
신흥국 투자펀드	Asia ex-Japan	354,984	13.3%	1,016.2	-356.9	-31,523.5
	Global Emerging	391,871	9.7%	-374.2	-1,482.5	-23,665.0
	Latin America	18,643		12.6	-165.9	-6,242.0
	Europe/Middle East/Africa	41,339		59.0	295.7	-1,277.5
주요 국가 및 국가군	Japan	296,973		-1,636.0	-3,112.9	52,908.8
	Western Europe	1,151,692		3,136.9	8,003.8	108,404.6
	United States	3,965,705		1,105.3	-11,719.0	-133,337.8
	China + Greater China	124,012		671.6	-787.6	-21,011.9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표〉 글로벌 채권형 펀드 유출입

(단위: 백만달러)

구분	지역별/시장별	자산규모	자금유출입		
			최근 1주	최근 4주	2015
전체 채권 펀드 (미국+신흥국+인터내셔널+하이일드)		3,637,305	3,869.0	-5,388.8	86,332.5
신흥국 채권 펀드 (EM bond totals)		265,175	379.2	-1,732.1	-15,256.9
	- EM 경화(\$) 채권	102,020	-124.2	-1,168.0	-6,968.9
	- EM 신흥국 통화 채권	117,787	539.8	333.5	-6,770.0
	- EM Blend 통화 채권	45,367	-36.4	-897.6	-1,518.1
인터내셔널 채권 펀드		1,186,924	12.9	-4,543.7	15,011.5
하이일드형 채권 펀드		459,084	2,560.3	-3,177.4	-4,670.9
미국 채권 펀드 (US bond totals)		1,726,122	916.7	4,064.4	91,248.8
	- Municipal	368,538	87.9	2,043.5	3,773.8
	- Floating Rate	102,448	-59.6	-1,245.5	-8,509.7
	- Inflation Protected	52,463	-21.7	-253.8	2,191.6
	- Inter. Term Corp.	31,469	362.8	618.8	2,452.0
	- Inter. Term Funds	418,331	-637.8	-1,624.3	34,416.9
	- Inter. Term Gov.	31,369	85.0	373.6	4,401.3
	- LT Bond	7,351	43.0	106.3	816.3
	- LT Corp.	40,908	504.9	1,153.3	6,833.1
	- LT Gov.	21,741	-19.4	1,753.0	3,640.1
	- MBS	92,490	497.1	1,508.7	12,119.0
	- ST Bond	221,825	111.1	-262.5	-7,816.3
	- ST Corp.	40,135	386.3	451.7	810.6
	- ST Gov.	44,725	-444.6	485.3	7,888.6
	- Total Return	252,329	21.8	-1,043.6	28,231.7
기타 채권 펀드 (Other bond totals)		4,528,430	4,987.5	51,039.0	38,377.6
	- MMF 채권펀드	3,687,879	4,514.1	52,781.7	1,877.8
	- Balanced Funds	840,552	473.4	-1,742.7	36,499.8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 Appendix 4 : 주요 증시 일정

19(월)	20(화)	21(수)	22(목)	23(금)
中> 3분기 GDP YoY (n/a, 6.8%, 7.0%) 9월 소매판매 YoY (n/a, 10.9%, 10.8%) 9월 광공업생산 YoY (n/a, 6.0%, 6.1%)  실적발표> 韓 S-Oil 美 모건스탠리, IBM	美> 9월 주택착공건수 MoM (n/a, 0.4%, -3.0%)  실적발표> 韓 포스코, 제일기획 美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야후, 버라이즌	日> 9월 무역수지 (십억엔) (n/a, n/a, -569.4)  실적발표> 韓 신한금융지주 美 보잉, 코카콜라, 바이오젠, 제너럴 모터스, 샌디스크, 이베이	유럽> ECB 통화정책회의 美> 9월 기존주택매매 MoM (n/a, 0.6%, -4.8%)  실적발표> 韓 현대제철 엘지디스플레이, LG상사 KT&G, SK하이닉스 美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캐터필러, 3M, 맥도날드 AT&T,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韓> 3분기 GDP YoY (n/a, n/a, 2.2%) 유럽> 10월 예비 마켓 제조업 PMI (n/a, n/a, 52.0) 독일> 10월 예비 마켓 제조업 PMI (n/a, n/a, 52.3)  실적발표> 韓 현대위아, 하나금융지주 美 아메리칸 에어라인, 월폴, P&G

26(월)	27(화)	28(수)	29(목)	30(금)
美> 9월 신규주택매매 MoM (n/a, n/a, 5.7%) 독일> IFO 기업환경지수 (n/a, n/a, 108.5)  실적발표> 韓 서울반도체, SKC코오롱PI	美> 9월 내구재주문 (n/a, n/a, -2.3%)  실적발표> 韓 삼성화재, LG이노텍 스카이라이프	실적발표> 韓 현대글로비스, 대림산업 LG유플러스, 넥센타이어 풍산	美> <b>FOMC 통화정책회의</b> 3분기 GDP QoQ (n/a, n/a, 3.9%) 독일> 10월 예비 소비자물가지수 YoY (n/a, n/a, 0.0%)  실적발표> 韓 삼성전자, LG전자 삼성SDI, 우리은행 삼성전기	日> <b>BOJ 통화정책회의</b> 9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n/a, n/a, 0.2%) 韓> 9월 광공업생산 YoY (n/a, n/a, 0.3%) 美> 10월 미시간대 소비자지수 (n/a, n/a, n/a) 유럽> 9월 실업률 (n/a, n/a, 11.0%) 10월 예상 소비자물가지수 (n/a, n/a, n/a)  실적발표> 韓 아모레퍼시픽, 한전KPS 기업은행, KT, 동부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정리: 한국투자증권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개혁 기대, 주가 매력 등에 주요 이머징 강세

- ▶ 상해종합지수는 1.6% 상승, 5중전회를 앞두고 예상 관련 산업에 선 매수세 유입
- ▶ 홍콩H지수는 0.8% 상승, 본토 개혁 기대감과 저가매수세 유입에 따른 강세
- ▶ 자카르타종합지수는 0.3% 상승, 기준금리 동결에 투자자들의 투자심리 개선되며 강세
- ▶ VN지수는 0.1% 상승, 은행권 건전성 개선 기대와 국영기업에 대한 정보 투명화에 강세

상해종합지수는 1.6% 상승,  
항공, 백화점, 신탁, 부동산,  
의류 등 업종 강세

###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는 1.6% 상승한 3,391p로 마감하며 주간 6.5% 급등했다. 강세로 출발한 증시는 장중 약세로 전환하기도 했으나 오후에 반등하며 3,400선을 향했다. 거래대금은 4,594억위안으로 직전일 대비 27% 늘었다. 오는 19일(월요일)에 있을 3분기 GDP 및 실물경기지표의 발표를 앞두고 국내외 기관들이 6.7~6.8%로 예상하며 투자자들의 경계 심리가 부각됐다. 다만 오후에 디즈니랜드 측에서 조만간 기자회견을 통해 진행상황을 보고하겠다고 언급해 디즈니랜드 테마주들이 급등하며 지수 강세를 견인했다. 한편 5중전회를 앞두고 13.5규획에서 강조될 산업들에 대한 선취매가 계속 진행됐다. 대부분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항공(3.9%), 백화점(2.6%), 신탁(2.5%), 부동산(2.4%), 의류(2.2%), 문화미디어(2.1%), 교통물류(2.0%) 등의 상승폭이 컸다. 차스닥지수는 직전일의 강세에 힘입어 금일도 1.8% 상승했다.

홍콩H지수 0.8% 상승,  
은행, 보험, 전기차 등의  
업종 강세

### ■ 홍콩 시장

홍콩H지수는 본토증시의 강세에 동조하며 0.8% 상승한 10,637p로 마감했다. 급등세로 출발했으나 장중 상승폭이 축소됐다. 중국 3분기 경제성장률 발표를 앞두고 역외 위안화 환율이 약세를 보이며 경계심리가 부각됐으나 중국 개혁 기대감으로 그동안 낙폭이 컸던 업종들에 저가매수세가 유입됐다. 은행, 보험, 전기차 등 업종이 상승한 반면 강세를 보였던 자동차, 에너지, 전력 등 업종은 하락했다. 알리바바픽처스(1600HK)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기업에 대한 투자 기대로 금일 13% 급등했다.

자카르타종합지수 0.3%  
상승, 원자재, 소비재,  
식료품 등의 업종 강세

### ■ 인도네시아 시장

자카르타종합지수는 0.3% 상승한 4,522p로 마감했다. 아시아 증시 상승에 동조하며 강세 출발한 증시는 장중 등락을 보이다 소폭 상승 마감했다. 전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자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개선됐다. 반면 루피아화의 약세 전환은 증시의 상승폭을 제한했다. 업종별로는 통신서비스, 자유소비재, 유틸리티, 원자재 등 업종이 상승했다.

## ■ 베트남 시장

VN지수 0.1% 상승,  
은행, 건축자재, 유통 등의  
업종 강세

VN지수는 0.1% 상승한 593p로 마감했다. 은행권 건전성 개선 기대, 국영기업에 대한 정보 투명화, 금리 하락 등이 호재로 작용했다. 그러나 600선에 근접한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마감 직전에 상승 폭이 크게 줄었다. 은행, 유통, 건축자재 업종은 상승한 반면 보험, 고무 관련주가 약세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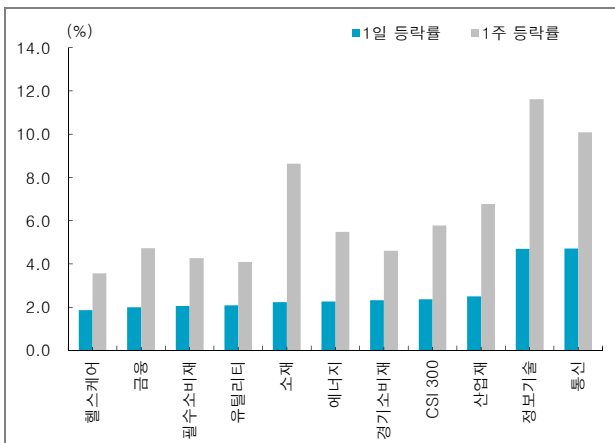
## 주요 이머징마켓 뉴스

### 시장 구분 주요 내용

중국	리커창, 역풍개입 방식의 경기조절 강화시킬 것이며 신 성장동력 육성에 지원할 것 발개위, 계절적 요인, 공휴일 일정으로 올해 농산품과 서비스 가격이 안정적인 성장세 유지 국무원, 농산품, 에너지, 환경, 교통운수, 의료 등 경쟁 가능한 영역 가격 시장에 개방할 것
러시아	중앙은행, 10월 9일 금&외환보유고 3,738억 달러 (3,702억 달러)
러시아	통계국, 9월 산업생산 증가율 YoY -3.7% (컨센서스 YoY -4.8%, 직전치 YoY -4.3%)
인도	통계국, 9월 무역수지 104.8억 달러 적자 (직전치 124.8억 달러 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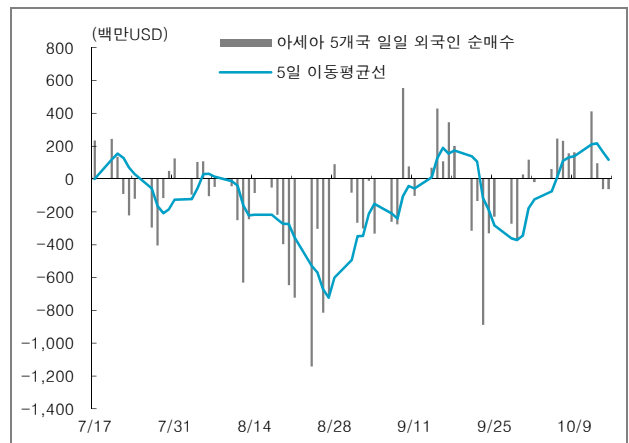
## ◆ 주요 이머징마켓 차트

[그림 1] 중국 CSI300 업종별 등락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 아세아 5개국\* 외국인 순매수 규모 추이



주: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5개국의 달러자금 흐름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분	10/16(금)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중국 상해종합	3,391.35	1.60	6.54	11.09	4.84
홍콩 H	10,637.01	0.80	2.21	13.09	-11.25
중국 차스닥	2,449.03	1.85	10.48	17.59	66.40
인도 SENSEX	27,121.26	0.41	0.15	3.70	-1.38
인도네시아 JCI	4,521.88	0.33	0.68	7.05	-13.49
태국 SET	1,420.10	-0.37	0.62	5.27	-5.18
베트남 VN	593.02	0.10	0.85	5.40	8.69
MSCI 이머징마켓	864.73	1.80	0.63	9.18	-9.58

주: 16일 오후 6시 05분 기준

##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 본격적인 어닝시즌을 앞두고 경계감이 확산되며 혼조 마감

- 미국 증시는 금융주 강세와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약화로 나스닥 지수가 2% 가까이 급등하는 등 일제히 상승 마감. 소폭 오름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금융투자를 비롯한 기관과 개인 매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도세가 상승을 제지하며 소폭 내림세로 마감. 다음주 본격적인 어닝시즌을 앞두고 경계심리가 확산된 가운데 원화 강세 소식에 자동차 등 수출주들이 약세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주도. 반면, 코스닥은 기관이 8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하며 상승을 주도, 680P선을 회복하며 이를 연속 상승 마감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광저우 바이론에셋매니지먼트와 골프시뮬레이터 독점 판매대리점 계약 체결 소식에 골프존이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으며, 메이링크와 제휴를 맺고 중국 내 B2B(기업간거래) 오프라인 유통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소식에 이지윌퍼어가 상한가를 기록. 나이키에 나노 멤브레인이 적용된 원단을 독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에프티이앤이는 거래 확대 기대감에 신고가를 경신했으며,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제이제이모터스를 대상으로 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제12회차 무기명식무보증 국내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는 소식에 한양하이타오가 9거래일 연속 급등하며 신고가 행진을 이어감. 또한, 3분기를 저점으로 4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에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의사 표명에 바이오시밀러가 수혜주로 부각되며 슈넬생명과학을 비롯해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임. 반면, 일회성 비용 증가로 그룹의 주요 3사의 3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에 두산이 7% 가까이 급락했으며, 원·달러환율 급락과 리콜문제로 기아차가 약세를 보임

종목/테마	내 용
<b>골프존(215000)</b> <b>▶102,800(+11.62%)</b>	<b>중국 진출 소식에 초강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의 광저우 바이론에셋매니지먼트와 골프 시뮬레이터 독점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초강세</li> <li>- 이번 계약으로 당사는 바이론에셋매니지먼트에 다음달 15일부터 2017년 11월14일까지 2년간 최소 200대 규모의 골프시뮬레이터를 공급하고, 바이론에셋매니지먼트는 이를 중국 광둥성 지역에 독점 판매하게 됨</li> </ul>
<b>이지윌퍼어(090850)</b> <b>▶17,150(상한가)</b>	<b>중국 유통사업 진출 소식에 상한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 마케팅 컨설팅 회사인 절강메이린문화발전주식회사(메이링크)와 제휴 협약을 맺고 중국 내 유통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소식에 상한가</li> <li>- 메이링크는 중국 저장성 Ningbo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O2O(Online to Offline) 마케팅 전문 대행사로, 온오프라인 행사, 판촉에 필요한 전략 컨설팅, 기획, 광고, 디자인, 제작은 물론 공공기관 프로모션과 매체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 사업을 진행 중</li> </ul>
<b>에프티이앤이(065160)</b> <b>▶5,470(상한가)</b>	<b>나노 섬유 공급 확대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이키사와 나노 멤브레인이 적용된 원단을 독점공급하는 계약을 체결. 나이키글로벌, 나이키트레이딩글로벌, 나이키 계열사 등에 제품을 공급하게 돼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li> <li>- 내년부터 나이키의 일반 패션화, 런닝화 적용이 구체화될 것이며, 오는 2017년에는 골프 및 의류제품에도 원단을 공급할 예정</li> </ul>
<b>바이오시밀러 관련주</b>	<b>박근혜 대통령의 TPP 가입의사 표명에 강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공식 방문 중인 가운데 TPP 가입시 미국 민주당 힐러리 후보의 약가인하정책과 맞물려 의료·제약 데이터독점권이 현 12년에서 5~8년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여 바이오시밀러(복제약) 사업에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된다는 분석에 강세</li> <li>- 슈넬생명과학(003060, +16.29%), 한미사이언스(008930, +9.33%), 한미약품(128940, +7.24%), 셀트리온(068270, +3.50%), 동아쏘시오홀딩스(000640, +3.45%) 등 강세</li> </ul>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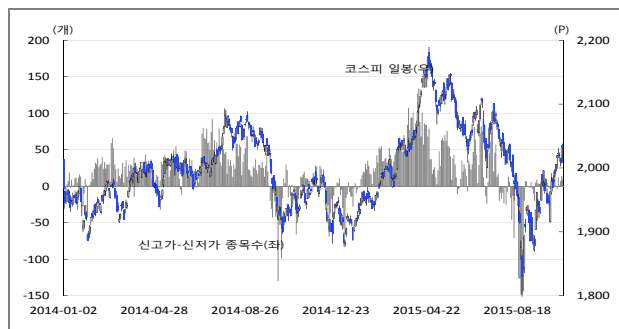
## 주간 국내외 증시 동향 및 52주 신고가 종목 현황

- 미국 증시는 어닝시즌이 본격화되며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중국의 수입 감소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약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미국의 경제지표 부진으로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늦춰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며 미국 증시는 물론 글로벌 증시에 호재로 작용하며 반등기조를 유지하는 모습
-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로 지난 7월 31일 이후 51거래일 만에 2,030P선 회복에 성공했으며, 코스닥은 최근 약세를 보였던 제약, 바이오주 상승에 힘입어 7거래일 만에 680P선을 회복하며 한주를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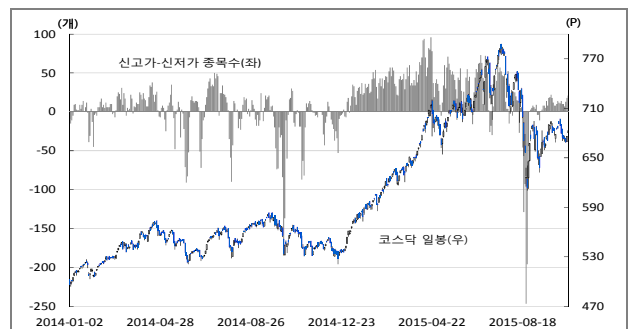
구분	섹터	업종	종목	주가(원)	등락률 (%)	섹터	업종	종목	주가(원)	등락률 (%)
유가증권	산업재	비금속	동양	3,320	6.1	경기소비재	유통업	월비스	2,540	13.4
	경기소비재	유통업	한솔PNS	1,670	34.1	경기소비재	섬유의복	신원우	34,500	40.2
	경기소비재	유통업	와이비로드	2,890	25.1					
코스닥	IT	통신장비	한양하이타오	14,500	41.5	소재	금속	제낙스	17,950	17.3
	IT	소프트웨어	유비벨록스	21,000	10.2	금융	사업지원	한국기업평가	48,800	11.0
	IT	컴퓨터서비스	정원엔시스	1,345	3.5	산업재	미분류	웨이포트	1,620	78.4
	IT	통신장비	SNH	7,290	16.5	산업재	사업지원	신후	3,670	88.2
	IT	컴퓨터서비스	아남정보기술	6,390	21.7	산업재	비금속	국영지앤엠	1,710	1.2
	IT	도매	소프트센우	41,000	153.9	산업재	전문건설	엠제이비	2,920	11.7
	IT	IT부품	웨이브일렉트로	25,350	9.5	건강관리	의료기기	바텍	42,600	4.7
	IT	통신장비	우리로	6,680	10.4	경기소비재	디지털컨텐츠	캔들미디어	1,335	9.0
	IT	반도체	와이솔	15,700	5.4	경기소비재	방송서비스	YTN	2,950	16.8
	IT	화학	상아프론테크	10,800	13.7	경기소비재	육상운송	SG&G	4,640	36.7
	IT	도매	한국정보공학	6,450	26.0	전기서비스	통신서비스	세종텔레콤	972	80.7
	소재	화학	에프티이앤이	5,470	42.4					

주) 상기 종목들은 10월 16일 장중 기준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의 현황이며, 등락률은 주간 등락률입니다.

코스피 일봉과 신고가-신저가 종목수 추이



코스닥 일봉과 신고가-신저가 종목수 추이



## 단기 유망종목: 엔씨소프트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종 목 (코 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엔씨소프트 (036570)	196,500 (+0.8)	195,000 (1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PC 게임 실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다수의 온라인/모바일 게임 출시 모멘텀 내재</li> <li>- 신작 출시 공백으로 3분기 실적은 전분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신규 PC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출시로 계단식 이익 개선 추세는 지속될 전망</li> <li>- 넥슨과의 경영권 분쟁에 따른 오버행 이슈의 주가 반영과정 일단락, 향후 우호적 주주이익환원 정책 예상</li> </ul>
LG전자 (066570)	45,950 (-2.2)	47,000 (1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 전장 사업 육성으로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와 장기 성장동력 구축 전망</li> <li>- V10과 Nexus 5X 등 스마트폰 라인 다양화, 가전 및 TV 부문의 경쟁력, 환율 상승효과 등을 주목할 필요</li> <li>- 휴대폰 부문의 부진을 감안해도 PBR 0.7배 수준은 현저한 저평가 상태로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li> </ul>
더존비즈온 (012510)	19,800 (-5.0)	20,850 (9/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11만 중소/중견 기업과 9천여 개의 세무회계사무소를 핵심 고객으로 확보</li> <li>- 클라우드 발전법 시행으로 클라우드 사업이 손익 분기점을 넘어서면서 어닝 모멘텀 본격화 예상</li> <li>- 클라우드 유지 보수액은 기존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대비 3배 이상 높아 향후 외형 성장을 견인할 전망</li> </ul>
피에스텍 (002230)	7,330 (+2.1)	7,180 (9/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스마트 그리드 사업 활성화에 따른 디지털 전력량계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 지속</li> <li>- 스마트미터기 매출 비중 증가와 건설사로의 공급물량 확대를 통한 실적 개선세 지속 전망</li> <li>- 1천억원을 상회하는 순현금을 바탕으로 설비투자과 사업 다각화를 통한 성장성 강화 예상</li> </ul>
농심 (004370)	353,500 (-4.7)	371,000 (9/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곡물 가격 및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원재료비 안정과 해외시장 성장에 따른 실적 개선세 지속</li> <li>- '짜왕' 출시를 기반으로 라면시장 점유율 회복에 성공한 가운데 프리미엄급 제품 라인업 강화 예상</li> <li>- 하반기에도 ASP 상승과 제품믹스 개선을 통한 수익성 개선 추세 지속 전망</li> </ul>
유비벨룩스 (089850)	21,000 (+30.4)	16,100 (9/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해 매출액은 888억원(+43.5% YoY), 순이익은 76억원으로 2년간 누적적자 55억원을 뛰어넘는 흑자전환에 성공할 전망</li> <li>- 중국/미국의 금융IC칩 교체수요 집중공략과 공장 및 대형쇼핑몰 In-door LBS(Location Based System) 시스템 구축에 주목할 필요. 미주향 스마트카드 매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중국 진출과 신사업인 LBS플랫폼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li> </ul>

##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엔씨소프트, LG전자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중장기 유망종목: 롯데칠성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5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롯데칠성 (005300)	2,281,000 (-1.6)	2,319,000 (9/23)	2,407	177	118	86,667	2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류시장의 저도화와 다양화 추세를 주도하며 시장 경쟁력 강화와 시장 점유율 확대 예상</li> <li>- 맥주(Kloud)사업 성장과 향후 계열사 지분 및 서초동 부지 가치 현실화에 대한 기대 유효</li> <li>- 음류와 주류시장의 성장으로 실적 개선 모멘텀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배구조 개선으로 투자 유가증권의 가치 부각 가능성</li> </ul>				
SK텔레콤 (017670)	258,000 (+4.9)	246,000 (9/07)	17,169	1,849	1,800	25,027	1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규제 리스크가 완화되는 가운데 자사주 매입 가능성, 배당금 증액 가능성 등 주주우선시 정책 강화에 대한 기대 유효</li> <li>- 비통신사업의 성장성이 제고되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 트래픽 증가, 마케팅 비용 감소 등으로 3분기 수익성 개선 예상. 방통위 제지(10월1일~7일 영업정지)에 따른 수익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li> </ul>				
현대위아 (011210)	129,000 (+22.9)	105,000 (9/03)	8,022	502	415	15,616	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자동차 수요 둔화와 현대/기아차의 판매량 감소로 수익성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나 증설과 점유율 확대를 통한 외형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li> <li>- 엔진 믹스 개선과 신규 공장 가동에 따른 성장성, 환율 상승에 따른 수익성 개선 등을 감안하면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li> </ul>				
삼성전자 (005930)	1,265,000 (+16.2)	1,089,000 (9/01)	197,087	26,512	19,497	143,876	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분기 IT제품 수요의 전반적인 부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부문의 영업이익률은 시장 기대치를 상회. 20나노공정 비중이 4분기 70% 수준까지 상승하면서 원가절감을 통한 수익성 개선세 지속 예상</li> <li>- 하반기 시스템LSI부문의 실적 개선, 역사적 최저 수준의 밸류에이션, 우호적인 환율 환율, 주주환원정책 실시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투자매력도 제고 가능성 상존</li> </ul>				
강원랜드 (035250)	42,750 (+3.3)	41,400 (7/31)	1,649	591	461	2,274	1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메르스 영향에 따른 일시적인 실적 둔화보다는 성수기 진입, 테이블 증설효과, 가동률 상승효과, 인력확충 효과 등을 주목할 필요. 안정적인 실적 모멘텀과 배당매력 재무각 가능성 상존</li> <li>- 제2 영동고속도로 개통, 평창올림픽 개최, 워터월드 사업, 중국인 방문객 증가 등 장기 성장 잠재력 확보</li> </ul>				
코웨이 (021240)	87,800 (-9.9)	97,500 (7/20)	2,302	432	325	4,383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가전 렌탈 시장의 성장세에 힘입어 환경가전 렌탈 부문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렌탈 가입자 순증세와 ARPU(가입자당 평균 렌탈요금) 상승세 지속 예상</li> <li>- 외부 변수에 강한 비즈니스 및 수익 구조, 안정적인 국내외 성장 모멘텀, 판매채널 다각화, 배당 매력도, 해외사업의 잠재력 등을 주목할 필요</li> </ul>				

##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강원랜드, 삼성전자, 현대위아, SK텔레콤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무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반도체: 삼성전자 모바일AP 경쟁력, 퀄컴과의 격차 더 좁힐 듯

### ■ 2016년 초 출시될 플래그쉽 AP모델로 퀄컴과 본격 경쟁 가능할 전망

삼성전자의 모바일AP(Application Processor) 경쟁력 강화가 지속되고 있다. 갤럭시S6와 갤럭시노트5에 탑재된 엑시노스7420에 이어 내년 초 자사의 플래그쉽 스마트폰 모델인 갤럭시S7에도 자사의 새로운 AP인 엑시노스8890이 퀄컴의 스냅드래곤820과 함께 탑재될 전망이다. 모바일AP의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만으로 성능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삼성전자의 새로운 AP가 성능에서 우수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퀄컴대비 기술적으로 뒤쳐져 있던 customized CPU core채택과 모뎀 통합을 구현함으로써 모바일AP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 ■ 모바일AP 시장에서 모뎀 통합 원칩 솔루션으로 점유율 상승 예상

삼성전자는 2015년 엑시노스7420 AP칩을 자사의 플래그쉽 스마트폰 모델인 갤럭시S6와 갤럭시노트5 등에 채택함으로써 퀄컴의 스냅드래곤810 모델에 우위를 점했다. 하지만 엑시노스7420칩이 여전히 모뎀과의 통합 원칩 솔루션이 아니라는 점은 모바일AP 시장에서 퀄컴과의 경쟁력 격차가 존재한다고 보는 이유였다. 새로운 AP칩인 엑시노스8890에서는 모뎀 원칩을 구현할 것으로 보여 퀄컴과의 기술력 격차를 더 줄일 전망이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7뿐만 아니라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high-end모델에도 채택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점에서 2016년 이후 모바일AP 시장에서의 점유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 ■ 삼성전자 최초로 customized CPU(몽구스) core 채택한 8(Octa) core 구조일 듯

엑시노스8890의 9월 9일 깃벤치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삼성전자가 최초로 ARM의 CPU core 대신 자체 customized CPU core를 채택하고 그 성능이 엑시노스7420에서 사용했던 ARM Coretex-A57 core대비 클럭당 성능이 30% 이상 잘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엑시노스8890은 삼성전자 최초의 customized CPU core가 될 몽구스 core를 4개, ARM Coretex-A53 core를 4개 채택하는 옥타core(core 8개) 구조가 될 전망이다. 퀄컴의 스냅드래곤820이 전작인 스냅드래곤810과 달리 자체 customized CPU core인 Kryo를 사용해 쿼드core(core 4개)를 채택하고 있어 삼성전자와 퀄컴이 각자의 customized core로 경쟁하게 된다.

### ■ 삼성전자의 모바일AP 시장 경쟁력 지속 상승. 투자이견 '매수' 유지

파운드리 사업과 함께 삼성전자 시스템LSI부문의 주력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모바일AP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2015년 삼성전자 시스템LSI부문 매출액은 10.6조원으로 전년대비 비슷하겠지만 영업이익률은 -12.0%에서 6.6%로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2016년에도 삼성전자 시스템LSI부문의 매출액은 13.5조원으로 27.9% 증가하고 영업이익률도 11.3%로 개선될 전망이다. 파운드리 사업의 신규고객 확보와 모바일AP 시장에서 점유율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에 대해 투자이견 '매수'와 목표주가 1,600,000원을 유지한다.

\*상기 보고서는 2015년 10월 15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보험: 금리만 보다 큰 그림 놓치지 말아야

### ■ 금리만 보다 보험료 자율화의 큰 흐름 놓친다

비관적 금리 전망, 4분기 계절적 실적 부진 우려가 팽배했지만, 손보 6사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 우려가 극에 달했던 8월 말(8월 25일) 대비 평균 14.2% 상승했으며 동기간 코스피지수를 4.1%p 아웃퍼폼했다. 우리의 예상보다는 늦어졌지만, 상반기 요율 조정 이후 위험보험료와 자보 매출이 3분기부터 빠르게 증가하며 2016년 큰 폭의 실적 개선 가능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손보사의 3분기 위험보험료는 전년대비 평균 15.0% 증가, 원수보험료 기준 자보 매출은 전년대비 3.3% 증가할 전망이다(삼성화재 제외). 삼성화재는 온라인 자보 비중이 증가해 자보 매출이 전년대비 4.1%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2016년은 본질적인 손해를 개선시기와 맞물려 현실적인 보험료 조정, 고액차량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 후순위채 발행 제도 유연화라는 굵직한 규제완화가 화두가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10월 중순 구체적 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시중 금리 방향성과 월별실적에 의존해 보험주를 보는 이분법적 접근이 아닌 보험료 자율화라는 큰 흐름에 편승해야 할 시기이다. 보험료 자율화에 힘입어 수익성이 보전되는 물론 다양한 상품 개발로 성장이 화두가 되는 2016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생, 손보 모두 손해가 예상되지만, 2015년 하반기 자보손해를 peak-out, 2016년 상반기 위험손해를 peak-out이 예상되는 손보사에 관심이 필요한 시기이다. 우리의 투자선호도는 기존의 한화손해보험(000370, 매수/TP 9,000원), 동부화재(005830, 매수/TP 66,000원), 현대해상(001450, 매수/TP 35,000원), 삼성화재(000810, 매수/TP 330,000원) 순이지만 대부분의 보험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한다.

### ■ 1) 고가차량 자보 요율 합리화, 2) 자보 건수제 도입으로 자보 개선 폭 커질 전망

감독당국은 자동차보험 손해를 상충의 온실이던 고액 차량의 자동차보험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최근에 늘어난 자동차보험 영업적자는 대인손해보다 고액차의 대물담보 증가 요인이 크다. 국내 등록된 자동차 가운데 수입차의 비중은 5.5%에 불과하지만 수입차의 보험료 비중은 11.3% 렌트비 비중은 31.4%, 부품비 비중은 27.4%를 차지할 정도로 수입차의 보험금 지급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과거 5년간 사고발생률은 큰 변화가 없지만 교통사고 보상에 필요한 수리비, 렌트비가 큰 폭 증가했다는 점은 최근 늘어난 수입차의 영향이 크다, 최근 2년간 수입차 수리비는 연평균 13.1% 증가했지만, 국산차의 연평균 수리비 증가율은 3.7%에 불과하다. 렌트비의 경우 수입차의 연평균 증가율은 20.4%, 국산차는 6.5%이다. 보험사고 시 차량 수리를 하지 않고 보험사로부터 예상 수리비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추정수리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수입차는 19.2%, 국산차는 6.4% 이다. 결국 수입차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근본적 대안이 필요했다.

따라서 감독당국은 1) 고액자동차의 보험료 현실화(자차보험 기준 평균 4.2% 보험료 인상), 2) 국산차로 렌터카 대체, 3) 추정 수리비 제도 폐지, 4) 대체부품 활성화(불필요한 부품 교체 지양, 국산 제품으로 대체)등으로 보험금 누수를 바로잡을 예정이다. 2014년 단행한 업무용/영업용 자보 요율 인상, 2015년 상반기 자보 담보 조정, 2016년 도입될 고액 차량 요율 현실화로 자보 손해율의 큰 폭 개선이 예상된다.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2018년부터 도입되는 자동차 사고건수 기준 할증 제도는 손해율의 추가 개선요인이다. 기존에는 자동차 사고 크기에 따라 점수를 매겨 보험료 할증을 적용했지만 2018년부터는 사고 손해액과 무관하게 소액이라도 자동차 사고 건수에 따라서 1~9 등급을 나누고 보험료 할증을 적용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사고 1건당 14%, 2건 39%, 3건 69%, 4건의 경우 81%의 추가 부담이 생기는 것으로 분석했다. 물론 무사고인 1등급을 적용 받으면 보험료는 약 3~4% 할인된다. 도입 이전 2016년 말부터 가입자의 사고를 집계해 2018년 자보 요율 산정에 반영한다. 따라서 내년 말부터는 보험료 상승을 우려하는 고손해율 가입자의 운전습관 변화로 자동차 사고율 및 손해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상기 보고서는 2015년 10월 15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은행: 당국의 한계기업 정리 방침과 기업금융정책의 변화에 대한 소고

### ■ 한계기업 구조조정, 4분기 주가의 부담으로 작용할까?

일부 언론의 표현으로는 ‘좀비기업 정리’라고 알려진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연내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부총리는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정부 주도의 조선업 구조조정 계획을 준비 중이라 발언했고, 금융위원장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업 전반의 구조조정을 준비 중이라는 취지를 전달했다. 예전 같으면 은행(지주) 업종에는 부정적으로 비쳐질 수 있겠지만, 주가가 충분히 낮고 부실기업에 대한 익스포저가 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는 특수은행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 상황이 심화되어 왔기에 투자자들은 특별한 부정적 사안으로 여기는 것 같지는 않다. 은행(지주) 업종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한다.

### ■ 경제 내 불확실성 제거, 자본시장 역할 강화, 금리 상승 대비 등 여러 측면에서 해석

우리는 금번 기업구조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다각도로 곱씹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금리 상승 전환에 대한 대비”로 보인다. 올해 초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가계대출에 대한 굵직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주지하다시피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나누어 갚는 대출’로 전환해주는 내용이었다. 당시 당국은 금리의 상승 전환에 대비하는 빅 오퍼레이션(big operation)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조만간 단행될 구조조정은 또 다른 주요 차주인 기업에 대한 것이다.

“한계기업 정리를 통한 공급 조절” 측면에서도 볼 수 있다. 조선/건설/철강/운송 등 한계업종의 대기업 구조조정이 주를 이룰 것임을 뜻한다. 일부 업종의 경우 공급 축소를 통해 살아남은 회사들의 경쟁력/투자/고용 회복을 노린다.

“정책금융 역할 재조정” 측면도 존재한다. 정책금융의 역할 재조정이 이번에 얼마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알 수 없다. 다만, 시야를 넓혀 향후 10~20년의 변화 방향을 내다보면 은행들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규모 투자자금을 제공하는 현재의 모습은 사라질 것이다. 한국의 정책금융의 규모는 GDP 대비 8.4%(2010년)로 일본(12.5%)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의 0.04~3.6%를 크게 상회한다. 정책금융의 중요한 일부라고 할 수 있는 보증(신보/기보/지역신보에서 제공)을 통한 중소기업 대출 공급도 비슷한 상황이다. 기업여신의 부실화는 정부의 세출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이에 대한 선제적 관리 및 장기적인 기업자금 공급 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할 상황인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자본시장의 역할 강화” 주문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2011년 이후 계속되는 금융투자업자와 거래소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정책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이어질 것이다. 전전일 당국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들의 기업신용공여 한도를 100%까지 확대하고, 지급보증을 이 한도에서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금융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별도로 코스닥 시장의 상장 요건에서 외형요건의 엄격한 적용을 완화하고, 코넥스 시장의 활성화를 애쓰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현재 은행 중심의 은행(지주)회사들도 비은행자회사 역량 강화에 상당한 투자를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임을 의미한다.

### ■ 기업구조조정으로 인한 부담은 상장 은행(지주)에는 크지 않을 것

기업의 신용위험과 관련해서 대기업/중소기업으로 구분한 신용위험평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매년 시행되어 오던 바다. 현재 상장된 은행(지주)들은 이처럼 연례적으로 실시된 신용위험평가 결과 덕분에, 금번 기업구조조정 결과가 미칠 부담에 대해 큰 우려는 않고 있다. 실제로 우리경제의 부담을 지우는 한계기업들에 대한 은행 익스포저는 산업은행/수출입은행/NH농협/우리은행 등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한편, 우리가 외감 제조업(상장 및 비상장 22,000여 외감법인)을 대상으로 한계기업(3년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 & 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40% 이상’)의 부채를 주채권은행별로 조사한 결과도 이와 유사하다. 총부채 283조원 중 주채권은행이 파악가능한 130조원의 기업의 부채를 주채권은행에 따라 살펴본 결과 KDB산업은행이 가장 많은 31%를 담당하고 있고, 우리은행은 28%, 하나/외환은행은 16%, 신한은행 8%, KB금융 7%의 순서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결과는 은행이 짚어준 기업신용위험 분포에 대한 기존의 시장 인식과 큰 차이 나지 않는다. (부채를 해당 기업의 주채권은행별로 조사한 것이어서 실제 익스포저 분포와는 차이날 수 있음. 각 은행별 익스포저의 자세한 분포 결과는 별도 보고서로 발간할 계획)

결론적으로 2015년 막바지에 예정된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부담은 당사 유니버스 은행(지주)회사보다는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특수은행과 우리은행(000030, 중립), 시중은행 중에서는 하나금융(086790, 매수/TP 40,000원)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두 회사 모두 PBR이 절대적으로 낮아 관련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고도 남음이 있는 수준으로 진단한다. 금번 기업구조조정이 펀더멘탈과 주가에 우려할만한 훼손을 입히기는 힘들 것이다.

### ■ 기존 종목별 선호 유지하지만, 우리은행의 처리 과정을 관찰할 필요는 있음

현재의 종목별 선호 순서(‘하나금융, DGB금융(139130, 매수/TP 18,700원), 신한지주(055550, 매수/TP 63,000원), BNK금융지주(138930, 매수/TP 21,000원), KB금융(105560, 매수/TP 59,000원)’를 유지한다.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특히 주목할 종목은 우리은행이다. 비록 현재 우리의 의견은 ‘중립’ 이지만, 과점주주매각을 위해 진행 중인 물밀협상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한계기업에 대한 추가자금지원의 관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례를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올해 손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기업구조조정 결과가 부담을 떨치는 계기로 작동한다면, 이는 주가가 큰 폭의 저평가 상황에서 벗어날 모멘텀으로 작동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상기 보고서는 2015년 10월 15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10/8(목)	10/12(월)	10/13(화)	10/14(수)	10/15(목)	10/16(금)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019.53	2,021.63	2,019.05	2,009.55	2,033.27	2,030.26
	등락폭		13.69	2.10	-2.58	-9.50	23.72	-3.01
	등락종목	상승(상한)	399(4)	444(3)	346(4)	327(5)	611(3)	361(2)
		하락(하한)	395(0)	363(0)	456(0)	491(0)	204(0)	433(0)
	ADR		122.56	113.40	105.69	103.07	111.46	108.44
	이격도	10 일	102.30	102.01	101.51	100.70	101.53	101.12
		20 일	102.67	102.54	102.27	101.61	102.54	102.15
	투자심리		70	80	70	70	70	60
	거래량	(백만 주)	701	635	605	645	499	542
	거래대금	(십억 원)	6,260	6,219	5,194	5,032	4,655	4,616
코스닥	코스닥지수		674.97	672.96	672.82	668.92	676.05	681.73
	등락폭		-4.86	-2.01	-0.14	-3.90	7.13	5.68
	등락종목	상승(상한)	399(4)	444(3)	346(7)	327(10)	611(6)	549(6)
		하락(하한)	395(0)	363(0)	456(0)	491(0)	204(0)	459(0)
	ADR		119.17	110.22	104.30	102.20	110.18	109.30
	이격도	10 일	98.80	98.61	98.75	98.38	99.46	100.34
		20 일	99.40	99.02	98.96	98.40	99.35	100.08
	투자심리		40	40	30	30	40	40
	거래량	(백만 주)	686	508	736	690	744	756
	거래대금	(십억 원)	2,994	2,367	3,123	2,980	2,903	3,059

## ◆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650.9	1,176.6	751.7	204.3	101.5	154.9	58.7	11.0	221.3	62.4
	매도	2,646.8	1,235.0	720.2	139.6	130.0	149.4	79.5	8.9	212.9	39.6
	순매수	4.1	-58.4	31.5	64.7	-28.5	5.5	-20.9	2.2	8.4	22.7
	10 월 누계	-1,446.0	476.4	671.6	737.8	-116.7	-307.8	140.7	-2.3	220.0	298.0
	15 년 누계	1,933.8	1,099.6	-4,127.6	-4,093.1	-990.0	-4,510.5	-716.9	-926.9	7,109.7	1,094.2
코스닥	매수	2,791.5	166.6	115.9	30.0	12.6	35.7	11.1	2.7	23.8	17.9
	매도	2,791.7	190.9	89.9	21.0	18.9	20.3	2.8	2.9	23.8	19.4
	순매수	-0.2	-24.3	26.0	8.9	-6.4	15.4	8.3	-0.3	0.0	-1.5
	10 월 누계	446.8	-35.8	-400.9	-44.6	-75.0	-127.8	-19.5	-7.7	-126.3	-10.2
	15 년 누계	2,332.7	-827.3	135.0	-590.3	269.0	626.6	-107.6	-284.9	222.2	-1,640.3

주: 외국인인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13,393	유통업	-6,947
의약품	6,899	운수장비	-5,355
서비스업	2,921	통신업	-2,966
삼성전자	13,396	NAVER	-5,239
한미약품	6,487	현대차	-4,868
현대차2우B	5,239	기아차	-4,580
엔씨소프트	4,123	아모레퍼시픽	-4,441
LG화학	3,781	롯데쇼핑	-4,105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19,818	서비스업	-16,315
화학	10,654	음식료품	-5,736
금융업	9,653	운수장비	-4,276
삼성전자	18,539	두산	-6,202
아모레퍼시픽	5,303	CJ CGV	-5,370
KB금융	4,047	엔씨소프트	-5,199
LG화학	3,680	SK	-4,849
기업은행	3,422	현대차	-4,407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유통업	1,305	운수창고	-930
의약품	821	보험	-398
제조업	651	운수장비	-321
KODEX 레버리지	9,026	KStar 200	-20,923
현대백화점	1,413	KODEX 200	-1,471
TIGER 경기방어	1,229	팬오션	-749
LG생활건강	1,002	에스엘	-405
현대리바트	654	GKL	-366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의약품	3,734	전기,전자	-8,316
은행	1,173	운수창고	-5,740
유통업	462	운수장비	-4,162
엔씨소프트	5,325	현대글로벌비스	-4,857
한미약품	4,448	CJ CGV	-4,183
SK	2,618	삼성전자	-3,469
LG상사	2,164	오리온	-2,819
LG화학	2,090	현대차	-2,661

###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44,594	운수장비	-43,109
의약품	23,653	운수창고	-20,193
화학	16,706	음식료품	-16,945
삼성전자	46,608	현대차	-26,053
엔씨소프트	37,039	롯데쇼핑	-12,601
한미약품	21,271	현대글로벌비스	-12,469
LG화학	17,244	기아차	-12,291
KODEX 인버스	12,220	CJ CGV	-11,607
기업은행	8,009	두산	-10,986
TIGER 200	7,133	오리온	-9,593
한미사이언스	7,132	KODEX 레버리지	-9,330
현대차2우B	5,427	SK	-6,867
현대모비스	5,178	현대중공업	-5,811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화학	19,412	전기,전자	-64,819
음식료품	15,666	서비스업	-47,489
전기가스업	14,715	유통업	-15,272
현대차	25,403	엔씨소프트	-66,271
NAVER	20,773	삼성전자	-41,996
한국전력	13,036	현대모비스	-15,336
현대중공업	10,822	SK텔레콤	-11,513
아모레퍼시픽	7,285	LG화학	-8,394
롯데케미칼	6,541	SK하이닉스	-7,654
유한양행	6,401	한샘	-7,042
삼성증권	6,228	TIGER 200	-7,017
삼성물산	6,000	현대차2우B	-5,699
CJ제일제당	5,490	두산인프라코어	-5,618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계약	5,285	소프트웨어	-3,799
의료,정밀기기	3,368	전문건설	-966
IT부품	1,924	인터넷	-425
오스템임플란트	2,165	골프존유원홀딩스	-3,956
휴온스	1,507	한양이엔지	-966
포스코켄텍	1,481	코스온	-578
CJ E&M	1,361	인터파크홀딩스	-504
셀바이오텍	1,291	카카오	-407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전문기술	1,628	계약	-3,752
출판,매체복제	1,141	인터넷	-1,577
디지털컨텐츠	613	소프트웨어	-690
CJ E&M	1,611	메디톡스	-3,401
에스엠	1,163	카카오	-1,623
위메이드	636	메디포스트	-1,389
셀바이오텍	634	씨티씨바이오	-612
파라다이스	601	동국제약	-539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비금속	406	계약	-536
인터넷	303	디지털컨텐츠	-378
전문기술	205	소프트웨어	-278
포스코켄텍	357	셀트리온제약	-378
카카오	303	아이크래프트	-224
휴온스	177	크레듀	-201
제넥신	177	골프존유원홀딩스	-188
이녹스	89	컴투스	-187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전문기술	1,425	인터넷	-1,630
반도체	447	계약	-1,331
운송장비,부품	331	금융	-1,165
CJ E&M	1,418	카카오	-1,535
오스템임플란트	915	한스바이오메드	-1,220
OCI머티리얼즈	846	한국토지신탁	-1,165
셀트리온	701	인바디	-1,059
리노공업	512	한양이엔지	-909

###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계약	9,553	인터넷	-5,302
전문기술	7,289	소프트웨어	-3,964
의료,정밀기기	4,743	전문건설	-1,833
CJ E&M	6,623	카카오	-4,940
셀트리온	4,063	골프존유원홀딩스	-4,452
오스템임플란트	3,535	한양이엔지	-1,824
셀바이오텍	2,846	한스바이오메드	-1,553
휴온스	2,546	메디톡스	-1,428
코오롱생명과학	2,216	CJ오쇼핑	-1,320
OCI머티리얼즈	1,887	인바디	-838
에스엠	1,655	씨티씨바이오	-825
네오팜	1,506	크루셀텍	-777
NICE평가정보	1,394	이지바이오	-617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계약	19,900	전문기술	-10,029
출판,매체복제	1,096	인터넷	-4,366
도매	954	일반전기전자	-3,318
셀트리온	14,318	CJ E&M	-9,006
메디톡스	7,781	카카오	-4,260
파라다이스	1,545	OCI머티리얼즈	-2,905
원익IPS	1,336	에이치엘비	-2,567
바텍	1,228	오스템임플란트	-1,663
에스엠	1,098	제이콘텐츠리	-1,585
에머슨퍼시픽	1,042	위메이드	-1,526
와이솔	978	바이넥스	-1,219
차바이오텍	896	성우하이텍	-1,164
유비케어	839	NICE평가정보	-1,133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 O S P I			
기	관	외	국 인
LG	16 일	동국제강	25 일
LG디스플레이	11 일	영풍	13 일
유수홀딩스	10 일	NAVER	12 일
TIGER 레버리지	9 일	한진중공업	12 일
KODEX 은선물(H)	9 일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11 일
KODEX 자동차	8 일	현대건설	9 일
KODEX 삼성그룹	8 일	삼성에스디에스	9 일
일성신약	7 일	세방전지	8 일

K O S D A Q			
기	관	외	국 인
메가스터디	8 일	다산네트웍스	19 일
KH바텍	7 일	시그네틱스	15 일
셀트리온	6 일	에스엔유	13 일
웹젠	5 일	포스코엠텍	11 일
성광벤드	4 일	덕산하이메탈	8 일
성우하이텍	4 일	심텍홀딩스	7 일
이오테크닉스	4 일	매일유업	6 일
SBS콘텐츠허브	4 일	다날	6 일

###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 O S P I			
기	관	외	국 인
삼성전자	240,403	NAVER	85,090
KODEX 레버리지	122,614	SK하이닉스	45,004
엔씨소프트	48,375	기아차	44,429
현대모비스	35,269	삼성SDI	44,158
신한지주	24,857	KT	42,517
KB금융	24,080	삼성물산	34,486
KODEX 200	23,905	현대중공업	33,903
LG	23,488	롯데케미칼	31,591

K O S D A Q			
기	관	외	국 인
셀트리온	9,325	셀트리온	14,587
웹젠	6,603	바텍	4,451
KH바텍	5,346	디오	4,035
코오롱생명과학	3,944	이지바이오	3,899
OCI머티리얼즈	3,853	한국전자금융	3,603
와이솔	3,482	KH바텍	3,244
마크로젠	3,213	라온시큐어	2,811
제이콘텐트리	2,696	인터파크홀딩스	2,672

###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 O S P 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화학	16,706	19,412	36,118
의약품	23,653	296	23,949
금융업	16,071	5,390	21,461
KODEX 인버스	12,220	2,575	14,795
아모레퍼시픽	2,764	7,285	10,050
한미사이언스	7,132	1,655	8,787
LG생활건강	4,623	3,529	8,152
신한지주	4,905	3,093	7,997
롯데케미칼	1,098	6,541	7,639
하나금융지주	4,236	2,562	6,799
POSCO	1,506	3,445	4,951
S-Oil	2,914	1,992	4,906
KB금융	4,188	337	4,525

K O S D A 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제약	9,553	19,900	29,454
출판,매체복제	2,016	1,096	3,112
통신서비스	1,364	911	2,275
셀트리온	4,063	14,318	18,381
휴온스	2,546	785	3,331
에스엠	1,655	1,098	2,753
바텍	1,192	1,228	2,420
파라다이스	569	1,545	2,115
와이솔	1,129	978	2,107
원익IPS	258	1,336	1,594
KH바텍	1,225	250	1,476
에머슨퍼시픽	150	1,042	1,192
서원인텍	598	420	1,018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SK케미칼	13 일	SK	28 일
현대엘리베이	12 일	LG	16 일
NAVER	12 일	SK텔레콤	12 일
후성	12 일	LG생명과학	10 일
한화	10 일	무림P&P	8 일
한화테크윈	10 일	LS산전	8 일
ARIRANG K100EW	10 일	효성	7 일
TIGER 인버스	9 일	화신	7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태웅	11 일	OCI머티리얼즈	11 일
인터파크홀딩스	8 일	GS홈쇼핑	10 일
카카오	8 일	주성엔지니어링	9 일
크루셜텍	8 일	아트라스BX	7 일
KTH	7 일	우주일렉트로	7 일
메디포스트	7 일	휴맥스	7 일
동진썬미켈	6 일	동진썬미켈	6 일
태광	6 일	위메이드	6 일

###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SK하이닉스	-82,726	삼성전자	-173,832
KODEX 인버스	-36,097	SK텔레콤	-80,339
NAVER	-36,052	엔씨소프트	-71,531
호텔신라	-26,847	SK	-60,455
삼성SDI	-26,735	호텔신라	-34,961
KT	-21,132	아모레G	-24,978
하나투어	-14,890	효성	-21,037
LG전자	-14,823	KB금융	-18,939

KOSDAQ			
기 관		외 국 인	
카카오	-56,268	카카오	-6,088
파라다이스	-10,521	에이치엘비	-6,002
씨티씨바이오	-5,978	원익IPS	-5,529
CJ오쇼핑	-5,376	제이콘텐트리	-5,284
CJ E&M	-4,969	OCI머티리얼즈	-4,357
에스엠	-4,918	블루콤	-4,251
인터파크홀딩스	-3,864	삼성엘엔에스	-4,153
CJ프레시웨이	-3,586	성우하이텍	-3,754

###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유통업	-9,931	-15,272	-25,203	
운수창고	-20,193	-1,073	-21,266	
기계	-6,595	-5,477	-12,072	
기아차	-12,291	-2,986	-15,277	
롯데쇼핑	-12,601	-1,913	-14,515	
현대글로벌비스	-12,469	-1,586	-14,055	
SK텔레콤	-2,280	-11,513	-13,794	
SK	-6,867	0	-6,867	
SK하이닉스	-1,874	-7,654	-9,528	
효성	-5,142	-3,022	-8,164	
현대위아	-5,560	-2,312	-7,872	
두산인프라코어	-836	-5,618	-6,454	
영원무역	-2,509	-2,800	-5,309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인터넷	-5,302	-4,366	-9,668	
소프트웨어	-3,964	-1,761	-5,725	
방송서비스	-1,610	-609	-2,219	
카카오	-4,940	-4,260	-9,200	
골프존유원홀딩스	-4,452	-307	-4,759	
제이콘텐트리	-6	-1,585	-1,591	
한국토지신탁	-451	-1,129	-1,580	
아프리카TV	-241	-989	-1,230	
제넥신	-348	-868	-1,217	
크루셜텍	-777	-223	-1,000	
에스에프에이	-312	-654	-966	
GS홈쇼핑	-306	-607	-912	
레드로버	-341	-563	-904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 O S P I			
종 목	주 수	금 액	
호텔신라	149	15,467	
한국항공우주	114	8,555	
기아차	137	7,371	
엔씨소프트	33	6,581	
아모레퍼시픽	16	5,753	
한미약품	16	5,412	
현대차	32	5,134	
삼성전자	4	4,631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 O S D A Q			
종 목	주 수	금 액	
카카오	154	17,908	
에스엠	65	2,599	
동서	78	2,555	
CJ E&M	16	1,271	
파라다이스	59	1,246	
NICE평가정보	104	1,146	
삼성엘엔에스	20	680	
코오롱생명과학	4	654	

###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 O S P 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3,180	4,034,968	
현대차	8,836	1,435,807	
현대중공업	11,850	1,273,894	
호텔신라	9,384	980,659	
삼성중공업	56,916	816,740	
기아차	13,524	733,011	
SK하이닉스	19,626	721,265	
롯데케미칼	2,373	643,177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 O S D A 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20,346	1,452,735	
카카오	6,808	789,704	
CJ E&M	298	551,342	
파라다이스	11,775	250,215	
위메이드	1,416	246,144	
바이로메드	1,562	191,919	
동서	4,802	158,220	
컴투스	1,244	140,721	

###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 O S P I			
순 증		순 감	
통신업	2,408	화학	-2,969
유통업	1,052	보험	-1,346
금융업	1,000	철강및금속	-1,111
KT	2,386	KODEX 200	-7,615
현대상선	1,620	SK하이닉스	-1,740
두산인프라코어	1,303	한화생명	-1,433
우리종금	1,176	금호타이어	-1,274
삼성전기	1,162	메리츠종금증권	-1,061
월비스	917	아시아나항공	-1,061
한화케미칼	911	한진해운	-998
호텔신라	772	한온시스템	-802
미래산업	718	S-Oil	-665
삼성엔지니어링	570	동국제강	-617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 O S D A Q			
순 증		순 감	
소프트웨어	540	IT부품	-1,224
의료,정밀기기	365	종합건설	-353
통신장비	324	운송장비,부품	-327
에이치엘비	485	파트론	-352
코리아나	468	차바이오텍	-316
솔고바이오	419	티케이케미칼	-279
엔티피아	400	성우하이텍	-275
바이넥스	232	이화전기	-272
에이스테크	220	SH 홀딩스	-271
이니텍	219	인터파크홀딩스	-264
네오이녹스엔모크스	210	삼성엘엔에스	-250
동서	169	카카오	-241
씨그널엔터테인먼트그룹	164	서희건설	-223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10/12(월)	10/13(화)	10/14(수)	10/15(목)	10/16(금)
외국인	1,099.6	476.4	105.3	133.0	104.0	-111.4	38.2	-58.4
기관계	-4,127.6	671.6	298.5	85.9	-90.1	38.8	232.3	31.5
(투신)	-4,510.5	-307.8	-179.1	3.1	-66.8	-56.1	-64.8	5.5
(연기금)	7,470.8	194.4	79.3	-33.7	-44.6	74.1	73.2	10.3
(은행)	-926.9	-2.3	-11.1	-1.9	-6.8	-6.1	1.4	2.2
(보험)	-990.0	-116.7	-37.3	-5.6	-15.6	-10.4	22.6	-28.5
개인	1,933.8	-1,446.0	-533.8	-267.2	-33.1	53.6	-291.2	4.1
기타	1,094.2	298.0	130.0	48.3	19.3	19.0	20.7	22.7

주: KOSDAQ 제외

###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12	2013	2014	10/8(목)	10/12(월)	10/13(화)	10/14(수)	10/15(목)
KOSPI	1,997.1	2,011.3	1,915.6	2,019.5	2,021.6	2,019.1	2,009.6	2,033.3
고객예탁금	18,014.3	14,211.8	15,842.5	20,584.8	20,522.5	20,959.8	20,946.3	20,902.1
(증감액)	334.1	-3,802.5	1,630.7	185.1	-62.3	437.3	-13.5	-44.2
(회전율)	26.7	29.9	34.0	45.0	41.8	39.7	38.2	36.2
실질예탁금증감	-13,998.7	-10,125.7	-2,121.1	37.9	-182.9	380.0	-195.6	-20.9
신용잔고(KOSPI)	2,202.9	2,289.7	2,533.3	3,192.0	3,182.7	3,162.1	3,148.0	3,149.2
신용잔고(KOSDAQ)	1,709.5	1,893.1	2,537.4	3,494.8	3,497.6	3,492.8	3,486.9	3,490.5
미수금	1,241.0	929.0	1,176.0	146.2	186.7	156.2	147.4	148.6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10/8(목)	10/12(월)	10/13(화)	10/14(수)	10/15(목)
전체 주식형	81,344	-281	125	-96	-76	25	103	35
(ex. ETF)		-289	-374	-148	-101	-183	-16	-62
국내 주식형	63,491	-1,149	40	-114	-71	21	99	31
(ex. ETF)		-1,134	-442	-166	-94	-187	-20	-66
해외 주식형	17,853	868	84	18	-5	4	4	4
(ex. ETF)		845	68	18	-7	4	4	4
주식 혼합형	9,546	-1,278	-34	-8	27	-5	-3	-1
채권 혼합형	31,130	3,229	395	-6	-4	23	-76	341
채권형	84,743	9,916	93	141	20	-292	184	-93
MMF	106,659	22,930	5,423	-1,777	-864	-761	894	-714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 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10/12(월)	10/13(화)	10/14(수)	10/15(목)	10/16(금)
한 국	1,408	273	-47	116	91	-98	34	-190
대 만	2,843	1,091	818	299	73	-52	349	149
인 도	4,018	410	123	49	50	24	-	-
인도네시아	-735	145	-9	23	-25	-	-1	-6
태 국	-2,899	173	20	23	-2	-26	26	-
남아공	2,267	-1,028	-602	-291	-113	-67	-132	-
필리핀	-920	-46	-42	1	-24	-1	1	-19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 분	2014년말	10/8(목)	10/12(월)	10/13(화)	10/14(수)	10/15(목)	10/16(금)
회사채 (AA-)	2.43	1.94	1.98	1.97	1.98	1.96	1.96
회사채 (BBB-)	8.26	7.87	7.91	7.90	7.91	7.89	7.89
국고채 (3년)	2.10	1.61	1.65	1.64	1.66	1.62	1.62
국고채 (5년)	2.28	1.78	1.83	1.82	1.83	1.77	1.77
국고채 (10년)	2.60	2.09	2.15	2.12	2.12	2.06	2.06
미 국채 (10년)	2.20	2.10	2.09	2.04	1.97	2.02	-
일 국채 (10년)	0.33	0.33	0.32	0.32	0.31	0.32	-
원/달러	1,099.30	1,159.00	1,143.50	1,149.70	1,146.80	1,130.20	1,129.10
원/100엔	920.30	966.88	953.24	959.21	961.92	953.68	952.75
엔/달러	119.45	119.87	119.96	119.86	119.22	118.51	118.51
달러/유로	1.22	1.13	1.14	1.14	1.14	1.14	1.14
DDR3 1Gb (1333MHz)	1.34	1.08	1.08	1.08	1.07	1.07	-
DDR3 2Gb (1333MHz)	2.21	1.22	1.24	1.25	1.25	1.24	-
NAND Flash 16Gb (MLC)	2.18	1.51	1.53	1.53	1.53	1.53	-
CRB 지수	233.24	203.24	200.27	200.00	200.37	199.53	-
LME 지수	2,907.6	2,351.4	2,441.9	2,424.0	2,432.1	2,431.2	-
BDI	782	817	809	804	787	766	-
유가 (WTI, 달러/배럴)	53.61	49.43	47.10	46.66	46.64	46.38	-
금 (달러/온스)	1,185.50	1,140.00	1,164.90	1,165.20	1,173.90	1,184.25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12	13	14	15	16
美> Lockhart 연준이사 연설 Evans 연준이사 연설	中> 9월 수출 YoY (-1.1%, -7.4%, -5.5%) 9월 수입 YoY (-17.7%, -16.5%, -13.8%) 독일> 9월 최종 소비자물가지수 YoY (0.0%, 0.0%, 0.0%) ZEW 서베이 예상 (1.9, 6.5, 12.1) 美> Bullard 연준이사 연설  실적발표> 美 존슨앤존슨, 인텔	中> 9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1.6%, 1.8%, 2.0%) 韓> 9월 실업률 (3.5%, 3.6%, 3.6%) 유럽> 8월 산업생산 MoM (-0.5%, -0.5%, 0.6%) 美> 9월 소매판매 추정 MoM (0.1%, 0.2%, 0.2%)	韓> 금통위 금리 결정 (1.50%, 1.50%, 1.50%) 美> 연준, 베이저북 발간 Dudley 연준이사 연설 9월 소비자물가지수 MoM (-0.2%, -0.2%, -0.1%) 中> 9월 M2 통화공급 YoY (~15일) (13.1%, 13.1%, 13.3%) 9월 신규대출 (~15일, 십억위안) (1,050.0, 900.0, 809.6) 日> 8월 산업생산 MoM (-1.2%, n/a, -0.5%)	유럽> 9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n/a, 0.2%, 0.0%) 美> 9월 광공업생산 MoM (n/a, -0.2%, -0.4%)
19	20	21	22	23
中> 3분기 GDP YoY (n/a, 6.8%, 7.0%) 9월 소매판매 YoY (n/a, 10.8%, 10.8%) 9월 광공업생산 YoY (n/a, 6.0%, 6.1%)  실적발표> 韓 S-Oil 美 모건 스탠리, IBM	美> Dudley 연준이사 연설 9월 주택착공건수(천건) (n/a, 1,142, 1,126)  실적발표> 韓 포스코, 제일기획 美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야후, 버라이즌	美> Yellen 연준의장 연설  日> 9월 무역수지(십억엔) (n/a, 81.8, -569.4)  실적발표> 韓 신한금융지주 美 보잉, 코카콜라, 바이오젠, 제너럴 모터스, 샌디스크, 이베이	유럽> ECB 통화정책회의  美> 9월 기준주택매매(백만건) (n/a, 5.36, 5.31)  실적발표> 韓 현대제철, 엘지디스플레이, LG상사, KT&G, SK하이닉스 美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캐터필러, 3M, 맥도날드, AT&T,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韓> 3분기 GDP YoY (n/a, 2.0%, 2.2%)  유럽> 10월 예비 마켓 제조업 PMI (n/a, 51.8, 52.0)  독일> 10월 예비 마켓 제조업 PMI (n/a, 51.9, 52.3)  실적발표> 韓 현대위아, 하나금융지주 美 아메리칸 에어라인, 월폴, P&G
26	27	28	29	30
美> 9월 신규주택매매 독일> IFO 기업환경지수	美> 9월 내구재주문		美> FOMC 통화정책회의 3분기 GDP QoQ 독일> 10월 예비 소비자물가지수 YoY	日> BOJ 통화정책회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韓> 9월 광공업생산 YoY 美> 10월 미시간대 소비자지수 유럽> 9월 실업률 10월 예상 소비자물가지수 YoY

☞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